

주간회의

(8월 23일 11:00 원장실)

- * 민선 4기 신규과제에 대한 총체적 점검(참여 연구진 구성 등)과 중간자문회의 독려
- * 기본과제 중간연심회의를 되도록 8월중에 마무리 지을것
- * 진행중인 수탁과제 진행일정을 종합보고
- * 정책과제 수행을 차질없도록 진행
 - 금주중 팀구성하여 전체회의 실시
 - 예산필요시 보고하여 추경예산에 반영
- * 민선 4기 신규과제 목록

연구과제명	소관부서
• 전북 경쟁력 강화방안 -도민의 일체감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기획관
• 전라북도 동부권 균형개발계획 타당성 조사	혁신분권과
• 식품산업 클러스터 육성 기본 방향	과학산업과
• 서부권 국립과학관 건립 기본방향 연구	과학산업과
• 전라북도 산업단지 조성계획 수립	건설행정과
• 전북맞춤형 쓰레기종량제개발	환경정책과
• 전북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효율적 운영방안	환경정책과
• 2005인구주택총조사결과 활용성제고방안	정책기획관

(8월 28일 11:00 원장실)

- * 14개시도 출연연구기관 대상 연말 평가 대비 연구사업 및 연구관련사업 철저당부
- * 강소성사회과학원 공동세미나 철저 준비(필요시 중국어 능통인원 충원)
- * 대형국책사업 발굴 관련 - 국회의원 보좌관 간담회 개최
- * 전라북도 산하기관(4개기관) 이전관련 확인
- * 연말 해외출장보고서 출간을 위한 해당 연구위원 보고서 제출 독려

연구과제

*** 새만금종합개발 특별법 제정 연구진 회의**

8.21일 16:00 새만금종합개발 특별법제정관련 연구진(원광대 이희성교수, 전북대 유진식 교수, 본원 박형창 박사 등)회의가 본원 회의실에서 열렸다.

*** 환경보전 중장기종합계획 수립설명회**

전라북도 환경보전 중장기계획 수립(연구책임:김보국 연구위원)에 대한 환경관련단체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설명회가 8.24(목) 15:00에 전라북도청 중회의실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김완주 전라북도 지사를 비롯하여 한영주 전북발전연구원장, 환경관련단체 대표, 연구진, 관련 공무원 등이 참여하여 전라북도의 환경비전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이 있었다.

한편 연구진은 전라북도 환경보전 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각 시군의 의견청취와 자료수집을 위해 완주, 전주, 정읍, 고창, 부안, 군산, 익산, 김제 등을 방문하였다.

*** 전라북도 과학기술자문위원회사업 연구용역**

전라북도 과학기술자문위원회사업연구(연구책임:김진석박사)용역이 2006년 8.1일부터 내년 2007년 7월 31일까지 일년간 1억원의 사업예산으로 진행된다.

과학기술자문위원회사업은 과학기술정책 발굴 및 조정, 과학기술사업의 평가 등을 통해 전라북도의 과학기술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자문위원과 연구위원으로 구성되어 운영된다.

연구사업

*제3회 한중국제학술교류대회

전북발전연구원과 중국강소성사회과학원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제3회한중학술교류대회가 10월말 전주에서 개최된다.

전북발전연구원과 강소성사회과학원의 국제학술교류협약의 일환으로 매년 교환방문 형식으로 3회째를 맞는 이번 한중학술교류대회는 강소성사회과학원 부원장을 단장으로 4명의 경제전문가가 전주를 방문해 전북·강소성의 경제협력 강화방안에 대해 전북발전연구원 3명, 강소성사회과학원 3명이 주제발표를 하고 학술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동 정

*전정희 소장

- 8월 23일 수요일, CBS "사람과 사람" '여성이 바꾸는 전북' 에서 <빈곤의 여성화>를 주제로 대담
- 8월 28일, 전주지방법원 직원들을 대상으로 "양성평등 및 직장내 성희롱 예방"에 대한 강의

*김보국 연구위원

- 8월 22일 군산국제해양관광지조성의 사전환경성검토보완에 대한 전라북도 문화관광국 유기상 국장 및 관계 공무원과 연구진(이동기, 최영희 연구위원)간 업무협의.

*나상균 연구위원

8월 23일 첨단 부품·소재산업 전진기지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실무추진그룹 회의에 참석.

*박형창 연구위원

8월 16일 전라북도 향만물류연구회와 함께 인천항과 평택항의 항만현황 및 시설 등을 답사하고 군산항의 활성화방안에 대해 논의.

*안완기 연구위원

8월 22일 행정자치부와 한국디지털정책학회가 "혁신전문가 심화교육"을 위해 실시한 "지방행정 혁신 워크숍"(제4차)에 행정자치부 지방행정혁신 평가위원 및 혁신브랜드사업 지도자문위원으로 참석.

*이승형 연구위원

8월 24일 김제시청에서 열린 한국종합기술에서 수행중인 "2025년 김제시 도시기본계획"용역의 자문회의에 참석하여 계획수립의 기본방향 및 세부사업에 대한 자문.

*이창현 연구위원

-8월 23일 오후 2시 전북도청 새만금환경국 새만금지원과에서 왕궁특수지역 타당성조사 관련 왕궁특수지역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2006. 6. 30.완료)과 관련하여 새만금환경국 새만금지원과 담당자와 업무협의.

-8월 24일 오전 10시 전북도청 건설물류국장실에서 건설물류국 관련 업무협의.

*조경욱 연구위원

-8월 23일 충청북도가 주관하고 여성가족부가 지원하는 "충북여성희망일터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여성인턴제"운영 중간보고회 및 워크숍에서 참석.

*이성재 연구원 박사학위 취득



본원 이성재연구원이 8월 22일 전북대학교에서 “아파트평면공간의 DB구축에 관한 연구” 라는 주제의 논문으로 공학박사학위를 받았다.

*서재영 연구원 전라북도 생물산업진흥원 공채

본원 서재영 연구원은 8월 21일자로 전라북도 생물산업진흥원에 책임연구원으로 공채되었다.

출간소식

* 전북발전포럼 2호 출간

전북발전포럼 여름호(2호)가 29일 출간되었다.

이번 포럼은 전북이미지라는 특집주제를 선정, 분야별 전문가를 통해 전북의 이미지를 집중조명하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시대변화의 수요에 맞는 지역의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마케팅함으로써 지역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을 모색했다. 특히 이번 포럼은 학술지성격의 딱딱한 분위기를 벗어나 종합지성격으로 다양한 정보와 기획물을 소개했다.



게시판

* 전북지역 고용 인적자원개발 협약식 및 포럼

「전북지역 인력수급구조의 현황과 과제」

- 일 시 : 2006년 8월 31일(목) 16:00~17:30
- 장 소 : 전라북도청 중회의실(3층)
- 주 관 : 전북발전연구원

전라북도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행사내용 자세히 보기](#)

* 「2008 대형국책사업 발굴」 현상공모

가. 응모기간, 제안서 및 응모 방법

- 기 간 : 2006년 8월 21일(월)~10월 20일(금)
- 교부·접수처 : 전북발전연구원 대형국책사업발굴연구팀
- 사업시행기관 : (재)전북발전연구원

나. 응모자격

- 전북 및 국가발전을 위해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모든 사람, 기관 및 단체

[현상공모 자세히 보기](#)

* 「전라북도 지역혁신 성공사례 예선대회」

- 프로그램 (9월 5일(화) 전북도청 회의실)

장 소	시간계획	진 행 내 용
	13:30 - 14:00	등 록
1부 개회식 및 특 강 (대회의실)	14:00 - 14:07	개회 및 국민의례
	14:03 - 14:07	김완주 도지사 인사
	14:07 - 14:11	김영석 지역혁신협의회회장 인사
	14:11 - 14:15	강태혁 국가균형발전기획단장 축사
	14:15 - 15:15	특 강 - 주 제 : 글로벌 지식기반 성장시대의 전북발전 비전과 전략 - 강 사 : 오상봉(산업연구원 원장)
	15:15 - 15:30	휴 식
2부 분야별 사례발표 및 평 가	15:30 - 17:15	각 분야별 우수사례발표 및 질의 응답 - RIS, 대학, 지원기관, 중소기업, 사군
	17:15 - 17:45	분야별 심사 및 평가
3부 시 상	17:45 - 18:00	각 분야별 심사결과 발표 및 시상

* 위촉연구원 모집

가. 모집분야

- 산업경제 : 경제학, 경영학 등
- 사회복지 : 사회복지, 아동, 노인, 사회학 등

나. 응시자격

- 석사학위소지자 이상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자격사유가 없는 자
- 해당분야 실무경력자 우대

[모집공모 자세히 보기](#)

자유발언대

* 가시고기 아버지

- 전정희 소장 (☎ 4P.)

* 개발과 환경 보존에 대한 인식과 통찰력: 사례의 교훈

- 안완기 기획조정팀장 (☎ 5P.)

* 노인(老人)말고 다른 말 없을까요

- 이한호 정보지원팀장 (☎ 7P.)

언론보도

* 제2차 여성농업인육성 5개년계획에 대한 단상

(전민일보, 8.25) - 조경옥 연구위원

원고모집

- ✓ 자유발언대 원고를 모집합니다. 형식이나 장르 구분 없이 공유하고 싶은 생각(지역발전에 대한 제안, 기타 등등)등을 매주 금요일 오전까지 정보지원실로 발송을 부탁드립니다.
- ✓ 접수처 : jdi@jd.re.kr

가시고기 아버지

여성정책연구소장 | 전 정 희

『가시고기』라는 소설이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을 울린 적이 있다. 이 책은 백혈병에 걸린 어린 아들을 살리기 위해 헌신하는 아버지의 사랑을 주제로 한 것이다. 대부분 자식에 대한 사랑은 엄마를 통해서 묘사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소설 『가시고기』에서는 가시고기의 속성처럼 아버지가 자신의 몸이 망가지는 것조차 모르고 아들에게 온갖 헌신과 희생을 마다하지 않는다. 결국은 자신의 각막을 팔아 아이에게 수술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자신은 간암으로 죽어간다. 그러한 결말이 지독히도 슬퍼서 많은 사람들을 울렸고, 각자의 아버지에 대해, 그리고 아버지로서의 ‘나’에 대해 되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요즘에는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많은 부모들이 너무도 쉽게 가정을 포기하고 아이들을 버리고 있다. 홀어머니가 보따리 행상을 해서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워냈다는 뉴스는 흘러간 시대의 미담으로 남아 있다. 이러한 시대에 가시고기 아빠의 자식사랑이 아주 특별하게 다가오는 것이다.

김현승 시인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시에 보면 “아버지의 눈에는 눈물이 보이지 않으나 아버지가 마시는 술잔은 눈물이 반이다”라는 구절이 있다. 이것은 과거 우리의 아버지들이 험한 세상살이에든 가족들에게 힘들고 슬픈 내색을 하지 않고 가정과 가족을 지켜낸 모습을 그리고 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버지들은 결코 울어서도, 약한 모습을 보여서도 안 되었다. 그것은 곧 남자답지 못한 것으로 치부되었기 때문이다.

고도성장의 시기를 지나면서 우리의 가정은 한 쪽 축이 무너진 기형적인 모습으로 지탱되어 왔다. 가정에 아버지의 그림자가 희미해져버린 것이다. 아버지는 일에 바빠 가정을 돌보지 못

하고 직장에 헌신한 결과 가정에서 소외되고, 아버지와 자녀들 사이에는 메울 수 없는 간극이 생겨나게 되었다.

그래서 아버지들은 항상 저만치 있었다. 웬지 선뜻 다가가기 어렵고 스스로없이 마주하기 힘든 모습으로. 특히 남자들은 아버지에 대해 아픈 기억을 많이 가지고 있다. 아버지를 미워하고,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했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너무 늦게 깨달았던. 그래서 그들은 끝내 아버지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해보지도 못하고 아버지의 주검을 마주하고 서야 오열한다.

언젠가 한 남자 대학생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다. 버스를 타서 맨 뒷자리에 앉아 있는데 아버지가 앞문으로 탔단다. 아버지를 보는 순간 아버지가 이쪽으로 안 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다행히 아버지는 앞 쪽의 빈 자리에 앉으셨고 그 순간 이 학생은 “아 다행이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집에 도착해서 내릴 때가 되었는데 이 학생은 고민이 되었다. “문 앞에서 아버지를 만날 텐데 아버지보고 뭐라고 해야 할까? ‘아버지 안녕하세요?’라고 할까 ‘아버지 어디가세요?’라고 할까?”

아버지 부재의 시대에, 너무나 무뎠다 해서 때로는 두렵기까지 했던 그 아버지들을 그리워하는 것은, 가시고기 아빠처럼 직접 행동하거나 표현하지는 못했으나 가슴 깊숙한 곳에 감추어져 있던 가족에 대한 애정을 늦게나마 읽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시대는 그런 아버지의 속 깊은 정을 읽어내기조차 힘들 만큼 정신이 부박하고 황폐해졌다. 그러나 더 늦기 전에 우리의 아버지들에게 감사하다고, 사랑한다고 그동안 차마 꺼낼 수 없었던 한 마디를 전해보면 어떨까.

개발과 환경 보존에 대한 인식과 통찰력: 사례의 교훈

기획조정팀장 | 안 완 기

개발과 환경보존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특히, 전북처럼 낙후된 지역에서 개발과 환경 보존의 중요성을 전제하며 전북발전을 모색한다거나 하는 점은 매우 난해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심지어 매우 격심한 갈등과 분열을 초래함으로써 전북발전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북 발전을 위해서는 전북이 보유하고 있는 많은 자연자원에 대한 새로운 개발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그 우선순위의 접근은 보다 분명해야 한다고 본다. 이는 특히 지도자가 개발과 환경 보존에 대해 어떠한 인식과 통찰력을 갖고서 발전을 위한 정책 기획과 집행을 해야 하는가와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즉, 지도자가 갖고 있는 인식과 통찰력이 향후 개발과 환경 보존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관건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단언은 다음 몇 가지 사례 제시를 통해 개발과 환경 보존에 대한 지도자의 인식과 통찰력이 부여하는 교훈을 얻을 수 있고, 향후 정책입안과 집행과정에서 성찰해야 할 점이라는 확신에서이다.

□사례 1: 덕진 연못 철교 보전(유지) 사례

한 때 전주에서 덕진 연못에 있는 철교가 환경친화적이지 않다는 논의를 통해 철교를 없애기로 결정하였던 적이 있다.

이러한 사실을 접하고 그냥 방치할 수 없다는 점에서 당시 개방형직위로 임용되었던 녹지과장을 찾아 결정을 번복할 수 있는 설득·논리 자료를 제공하였다. 그 논리의 여러 가지 내용 가운데 핵심은 “덕진 연못 철교는 더 이상 쇠덩어리 철교로서가 아니라 오랜 세월동안 덕진 연못과 함께 해온 환경 그 자체이며, 오히려 전주의 전통을 만들어 낼 수 있는 핵심 기제이다”라는 것이었다. 이러한 내용이 받아들여져서인지 모르

겠지만 현재 덕진 연못에 철교는 우리가 즐겨 찾는 명물로 남아 있다.

□사례 2: 전주 월드컵 경기장 유치와 건립 사례
한·일 월드컵 개최를 앞두고 전주시에 월드컵 경기장 건립문제가 쟁점화 되었을 때 공약에서 제외시키자는 다수 의견에 대해 추진쪽으로 논리를 선회시키고자 사용되었던 논리를 들 수 있다.

당시 경제적 타당성을 놓고 건립에 반대하였던 분들에게 “사람은 빵으로만 살 수 없습니다. 이후 월드컵 경기 기간 동안 우리 전주엔 월드컵 경기장이 없어 경기가 개최되지 않고, 경기를 타 지역으로 가서 볼 수밖에 없을 때 전주시민이나 도민이 느껴야 하는 공허함을 어떠한 경제적 가치로 보상할 수 있겠습니까? 더욱이 우리의 후손들에게 뭐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현재 전주 월드컵 경기장은 경제적 타당성 측면에서 우리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

□사례 3: 군산 방폐장 유치 실패 사례

군산방폐장 유치 실패는 전북발전이라는 점과 관련하여 매우 심각하게 성찰하며 개발과 환경보존 논의 속에서 잊지 말아야 할 사례이다. 군산 유치에 반대하는 분들에게 비장한 심정으로 “방폐장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라며 설득도 하였다. “거국적 차원에서 방폐장을 경주에 유치하는 것에도 반대운동을 하는 것은 어떤가? 반대론자들이 주장할 만큼 방사능이 그토록 위험하다면 한반도 좁은 땅 어디에 들어서도 누구도 안전할 수 없으려면, 흘랑 벗어던지고 원시시대로 돌아가란 말인가?”라고 호소도 하였다.

그러나 익히 알다시피 유물 유적이 즐비한 천년고도 경주, 아시아의 로마를 꿈꾸는 경주에 방폐장이 유치되게 되었다.

경주에 중저준위 방폐장 유치 후 2006년 5월에 중앙정부로부터 3000억원이 일시 지원되었으며, 8월 현재 한국수력원자력(주) 본사 유치 입지를 위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환경 보존과 개발에 관련된 다소의 차이가 있는 세 가지 사례가 주는 교훈에 대한 인식과 느낌 및 판단은 모두가 일치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전북의 발전에 대해 고민하고, 전북발전을 주도해야 할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은 위 사례를 통해 전북발전을 위해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판단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지도자로서의 책무 실현인가에 대해 통찰해야 한다고 본다.

우리가 이룩해야 할 전북발전은 지도자들의 전북 사랑의 숭선수범과 실천을 위한 슬기로운 정책 구상과 개발 및 집행을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인(老人) 말고 다른 말 없을까요

정보지원팀장 | 이 한 호

최근 우리사회가 급격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문제가 큰 사회적 이슈로 등장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차원에서도 노인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다. 노인문제의 핵심은 경제적 자립기반이다. 이 시대 노인들이 안고 있는 많은 문제들 가운데 어느 정도는 돈으로 해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먹고사는 문제, 가난, 질병, 외로움 등이 바로 그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정부정책 외에도 개인적으로 보증을 들거나 적금을 부어 노후의 경제적 수요에 대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적 자립기반만으로 노인문제의 근본적 해법을 찾았다고 볼 수는 없다.

우리사회의 큰 어른이자 존경과 존엄의 대상인 노인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끌어안을 수 있는 따뜻한 사회적 분위기조성이 경제적 자립기반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다. 이러한 사회분위기조성의 첫 작업으로 노인이라는 용어의 적정성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제안한다. 호칭이 무에 그리 대단하냐고 물을 수 있지만 그 속에는 우리의 문화와 철학, 정책의지가 담겨있기 때문이다.

노인(老人)이라는 말의 한자풀이는 늙은 사람이다. 그래서 늙은 사람을 노인이라고 부르는 것이 크게 잘못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노인이라는 말뜻은 철학이나 사상, 문화, 정책의지 등의 고려 없이 생물학적 기준만으로 구분해서 힘차고 생산적이고 기상이 충만한 젊은이의 반대개념으로 소모적이고 비생산적이고 기운 없는 늙은이로 지칭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늙어가는 것은 누구에게나 서글픈 일이다. 늙음은 곧 가난과 질병, 외로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이든 사람을 노인이라고 부르면 기분 좋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나이는 들었지만 젊다는 의미로 ‘젊은 오빠’라는 말이 한때 유행했던 것도 듣는 사람이나 부르는 사람 모두 노인이라는 말에 대한 거부감을 피해보려는 사회적 현상과 무관치 않다. 노인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노인문제를 접근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나이든 사람을 대하는 자세에서 진정성이나 존엄성이 배제된 채 단순히 사회적 문제 그 자체로만 취급하려는 정책적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역할 없이 소모적인 인간군상으로 치부되는 노인이라는 용어를 대체하는 말을 찾는 것으로부터 노인문제를 접근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인생의 황혼기에 늙은 것도 서러운데 남들로부터 늙은이 취급을 받는 것은 더 서러운 일이다. 그동안 우리는 장애인을 장애우로 바꿔 부르고 정상인을 비장애인으로 부르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사회통합 등의 정책적 의지를 실천해 왔다. 이렇듯 노인문제도 용어에서 정책의 의지와 방향이 반영될 수 있는 실천적 노력이 뒤따라야 할 때다.

노인이 천덕꾸러기로 치부되어 사회적 불균형과 계층간 갈등을 유발하는 원인이 된다면 그 사회는 건강한 사회, 살기 좋은 사회라고 할 수 없다.

노인이라는 말을 대신할 용어에 대해 막대한 현상금을 걸고 공모한다. 그 용어는 경험과 경륜으로 인생의 무게감을 더하고 효를 근본으로 하는 동양의 인본철학을 실천함으로써 사회적 통합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그런 의미가 함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현상금은 미래에 나이 들었을 때 노인이라는 말 대신 젊은이로부터 존경받고 인정받는 새로 제안된 그 이름을 듣는 것으로 대신한다.